

GC녹십자, 희귀질환 치료제 전진… 글로벌 고부가가치 공략

헌터라제ICV, 뇌실투여로 한계 돌파
산필리포 신약 GC1130A, 임상 가속
파브리병 LA-GLA, 피하주사 편의↑
美 알리글로, 1년 만에 매출 1000억
세계 첫 재조합 탄저백신 ‘배리트락스’

GC녹십자가 ‘희귀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의약품을 앞세워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대표 품목인 ‘알리글로’가 미국 시장에 안착한 데 이어, 연구개발은 물론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3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선천성 희귀질환인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ICV’ 국내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고 이는 올해 2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후 6개월여 만의 후속 조치다.

헌터라제ICV는 머리에 삽입한 디바이스를 이용해 뇌실 내에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방식의 치료제다. 약물이 뇌혈관 및 중추신경 세포까지 도달해 인지 능력 상실, 뇌 병변, 운동 발달 지연 등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까지



GC녹십자 본사 전경.

/GC녹십자

개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헌터증후군은 지능 저하, 골격 이상 등이 나타나며 중증 환자의 약 70%에서는 중추신경 손상이 발생한다. 기존 정맥 주사의 경우, 약물이 뇌혈관장벽(BBB)을 투과하지 못해 치료에 한계가 있다.

GC녹십자는 뇌실 내 직접 투여(ICV) 제형을 독자 구축했고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했다. 헌터라제ICV는 2021년 일본, 2024년 러시아에서 각각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GC녹십자는 차별화된 제형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필리포증후군 A형 치료제 ‘GC1130A’ 개발에도 역량을 쏟는다. 현재 미국, 한국, 일본 등에서 다국가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고농축 단백질 제제 기술을 적용해 뇌실 내 직접 투여가 가능한 기전을 규명하고 계열 내 최초 신약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GC1130A 비임상에서는 뇌실 내 직접 투여(ICV) 제형이 척추강 내 직접

투여 대비 47배 높은 약물 전달 효과를 갖췄다는 결과를 입증했다. 오는 2028년까지 파이널 데이터를 확보해 향후 5년 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산필리포증후군 A형의 주요 증상은 심각한 뇌 손상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15세 전후에 사망에 이르는 가운데, 아직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다.

한미약품과 공동 연구하고 있는 파브리병 치료제 ‘LA-GLA’ 임상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미국, 한국, 아르헨티나 등에서 순차적으로 임상 1/2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LA-GLA’는 월 1회 피하투여 용법을 갖춘 약물지속형 효소대체요법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2주에 한 번은 병원에서 수시간 동안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 정맥 주입에 따른 부작용 등 기존 치료법의 한계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선천성 면역결핍증에 쓰이는 혈액제제 ‘알리글로’는 K블록버스터 약물 후보다. 국산 혈액제제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7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발매되고 있다. 미국 진출 1년 만인 올해 7월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하며 수익 창출 기반도 다졌다. 알리글로 처방

확대에 힘입은 GC녹십자는 올해 2분기 혈장분획제제 사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68%에 달하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현재 알리글로 투약 누적 환자수는 500명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올해 안에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GC녹십자는 희소 백신으로도 성과를 거뒀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는 지난 4월 품목허가를 받은 제39호 국산 신약이다.

배리트락스주의 주성분은 탄저균을 방어하는 항원 단백질인데, 이 항원 단백질은 GC녹십자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제조한다. 인체가 탄저균에 감염됐을 때 생성하는 독소가 탄저병 예방을 위한 주요 면역원으로 작용하는 기전을 이용했다. 기존 탄저백신이 배양액을 사용하는 것과 차별화됐다.

GC녹십자 관계자는 “희귀의약품 시장은 공급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해당 시장 진입에 성공 시 지속가능한 성장, 높은 수익성 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국내외 희귀질환 시장에서 K신약의 입지와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커피만 마시는 곳 아냐”… 스타벅스, 힐링 공간으로 변신

익산부송점, 커피 숲 정원 선보여
기장임랑원점, 바다전망·정원 매력
용인·대전·전주, 숲·루프탑 품은 명소

스타벅스 코리아가 막바지 여름에서 초가을로 넘어가는 9월을 맞아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정원, 산책로가 갖춰져 있어 사색과 힐링 공간으로 안성맞춤인 매장을 소개했다.

지난달 29일 오픈해 가장 최근 선보인 익산부송점은 도심 속 커피 숲을 콘셉트로 매장 외부에 정원과 작은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다. 건물 3면을 모두 통창으로 설치해 자연광을 확보하면서 개방감을 높였으며, 매장 외벽과 연결되는 벤치석을 조성해 커피를 즐기면서 외부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소나무를 배경으로 하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다.

익산부송점은 일반매장과는 차별화



스타벅스 익산부송점 야외 정원. /스타벅스 코리아

된 디자인과 콘셉트를 적용한 스타벅스의 하이프로파일 매장이다. 스타벅스는 이번 익산부송점을 포함해 독서한강공원점, 여의도한강공원점 등 전국적으로 지역의 명소로서 대표성을 띠는 20여개 이상의 하이프로파일 매

장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 임랑해안길에 위치한 기장임랑원점은 상아색의 벽돌과 뾰족한 양쪽 방향으로 경사가 있는 박공지붕의 외관이 특징인 매장이다. 다양한 나무와 꽃꽂이 등이 우거진 넓은 정원이 바다 풍경과 어우러져 있으며, 자유롭게 오솔길을 따라 정원을 거닐며 커피를 마시면서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매장 옆에 특별히 조성된 글라스하우스에는 3m 높이의 베어리스타(스타벅스 마스코트)를 배경으로 하는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다.

용인고기동원원지점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3개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독채 매장으로 숲속 산장을 연상시키는 외관을 갖췄다. 매장이 들어설 부지에 있던 커다란 나무들을 베어내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매장 건물이 수목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으며, 수목이 어우러진 야외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소나무 숲 속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대전용운점은 ‘ㅁ’자 형태의 건물 가운데 조성된 중정을 비롯해 야외 정원을 갖춘 매장으로 중정을 4면으로 둘러싼 통창을 통해 1층과 2층 어디서나 정원 조경을 감상할 수 있다. 중정은 다양한 나무들과 물이 흐르는 작은 연못으로 꾸며져 있어 도심 속 오아시스라는 콘셉트를 최대한 구현했다.

끝으로 전주에코DT점은 3층 루프탑에서 시내 전경이 내려보이는 탁 트인 뷰를 경험할 수 있다. 매장에서 야외 정원 연결되는 길목에 연못을 배경으로 아치 형태의 조각물이 어우러져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으며, 야외 정원은 사각으로 공간을 구획한 뒤, 작은 연못과 잔디밭을 바둑판처럼 배열하는 조경미를 연출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국제약

피부 탄력·진정 동시에
민감피부 고민 케어 강화

엑스퍼트 마데카 액티브 PDRN 선택

동국제약은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에서 고기능성 탄력크림 ‘엑스퍼트 마데카 크림 액티브 리뉴 PDRN’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동국제약이 독자 구축한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 테카 피디알엔 등을 함유한다. 특히 테카 피디알엔은 연어·병풀·어성초·마린·장미 피디알엔(PDRN) 등 각기 다른 분자량을 가진 5가지 피디알엔(PDRN)과 로즈위트를 배합한 성분이다. 피부속 탄력을 채워주는 데 도움을 준다.

또 ‘5-스킨 리뉴 콤플렉스’를 처방해 피부 장벽 손상, 속건조, 붓기, 색소 침착 등 민감해진 피부를 위한 진정 기능까지 갖췄다.

동국제약 센텔리안24 관계자는 “엑스퍼트 마데카 크림 액티브 리뉴 PDRN은 탄탄한 피부 탄력과 전문적인 피부관리 후 흔히 나타나는 피부 자극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성분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센텔리안24 ‘엑스퍼트 마데카 크림 액티브 리뉴 PDRN’ /동국제약

한우·꽃감·식사권까지… 켄싱턴호텔앤리조트, 추석 선물 선택

2만~20만 원대, 가성비·프리미엄
오메기떡 등 건강 웰니스 선물 눈길
온라인 주문·선물하기로 간편 구매

이랜드파크의 켄싱턴호텔앤리조트는 추석을 앞두고 소중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2025 추석 선물 세트’를 오는 9월 28일까지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석 선물 세트는 최근 고물가 속 양극화 현상 트렌드를 반영해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고객이 가치있는 선

물을 전할 수 있도록 ‘가성비’와 ‘프리미엄’ 상품으로 나뉘어 기획됐다. 가격대는 2만 원대 실속형 상품부터 20만 원대 프리미엄 상품까지 40여 종의 다채로운 상품이 마련됐다.

프리미엄 트렌드에 맞춰 1++등급 한우, 프리미엄 혼합 과일, 제주은갈치 등 산지 직송 중심의 상품을 강화했다. 동시에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고객을 위해 2~4만 원대의 실속형 김세트 부각 세트, 켄싱턴 시그니처 타월 등 가성비 높은 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또한, 건강

을 생각하는 웰니스 트렌드를 반영한 지리산 천연 벌꿀, 상주 꽃감, 제주오메기떡 등 차별화된 상품도 눈길을 끈다.

특히 물건 대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는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켄싱턴호텔 여의도의 미식 경험을 선물할 수 있는 레스토랑 식사권 2종을 판매한다. 스시&그릴 라이브 다이닝 ‘브로드웨이 뷔페 식사권’과 정통 스테이크 하우스 뉴욕뉴욕의 시그니처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뉴욕뉴욕 식사권’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

물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이 외에도 켄싱턴 베어 키링 및 인형, 디퓨저 등 켄싱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시그니처 상품들도 구매할 수 있다.

2025추석 선물 세트는 켄싱턴호텔앤리조트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유선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 앱 온라인 스토어, 카카오톡 공식 판매 채널(시그니처 바이 켄싱턴) 등으로 바로 주문 가능하다. 배송은 9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를 연계해 간편 주문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신원선 기자